

올해, 광주는 '교통지옥'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곡·첨단·수완지구 확대... 호남고속도로도 확장
광주시, 교통량 기초정보도 파악 못해... 뒤늦게 부랴부랴 혼잡대응 나서



광주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가 예정된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임방울대로에 10일 오전 출근 차량이 몰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에 사로잡혀 있는 광주가 올해에는 또 다른 대형공사가 겹치면서 더욱 큰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데다, 고속도로 확장공사까지 진행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현재까지도 혼잡이 예상되는 공사대상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인 교통량 측정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구가 발주한 교통혼잡도로 개선방안 용역 결과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는 오는 4월께나 나올 예정이어서 대응책의 실효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장기 대형 공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착공식을 열었으며, 오는 2029년까지 57개월 공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정 등 20km 구간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총 18개 정거장도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1조 5036억원(국비 9022억원, 시비 6014억원)이 투입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오는 4월 중 착공해 2029년까지 60개월 동안 이어진다. 광주IC-광산IC 구간(동광주-용봉-서광주-동림-산월-광산) 총 11.2km의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7934억원(국비·시비 각 50%)이 들어간다.

착공 후 도로점용 허가, 교통전환 협의 등이 이뤄지면 실제 공사는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확장 구간이 겹치는 용봉 IC 구간, 광산IC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도심지점별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용봉 IC의 일일 평균 교통량은 16만 7117대, 광산IC는 15만 2570대이다.

특히 인근의 차량 이동량이 많은 전남대-일곡지구, 첨단지구, 수완지구 일대 또한 교통 정체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광주시가 지난 달에야 뒤늦게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꾸렸으나 대책마련의 핵심인 교통량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 광주시는 운전자들이 공사 구간을 피해 인근 이면도로 등 대체 도로에 몰릴 것으로 추정 중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면도로에 어느 정도의 차량이 몰릴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를 운행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아직 정확한 교통량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구와 협의해 현황 자료를 한번 관리해 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도 "북구청 사거리, 설죽로, 하서로, 각화동 지역에서 교통 체증이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체적인 교통량 수치나 교통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해 12월 말에 돼서야 교통혼잡도로 개선방안 추진 용역을 추진했다. 이는 공사 구간 일대의 교통량 및 지체 시간을 측정하는 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오는 4월께야 나올 예정이다.

광산구 또한 '첨단, 수완, 신가, 운남 등에 교통량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교통량의 경우 광주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에서 조사 중인 만큼 광산구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은 자문 및 정책결정 기능의 '총괄대응단'과 지원 기능의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됐으며, 1일·1주 단위 차량 이동량을 분석하고 공사와 차량 통제 구간·기간을 조정하며 운행 분산, 우회도로 활용 등 대안을 모색하는 등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빠~ 슬드셨네요" 응주운전 단속 현장	▶6면
KIA 포수 한준수, 안방 생존경쟁 돌입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기도 의왕무민공원	▶22면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이은결 마술 강연

김난도 교수 김정은 교수 유연준 교수 서경석 MC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2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2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25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시작

전국 173만가구 대상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안전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관련기사 9면〉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는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

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가구(2022년 기준)다. 전체 아파트 1195만가구 중 15%가 재건축 착수 대상이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